"여보, 내년엔 잘 할게"

결혼 앞둔 KIA 김주형 순발력 키우기 훈련 집중 "어느 포지션이든 최선"

쑥스러운 '새신랑' 김주형(30)이 달라진 2016년을 꿈꾼다.

KIA 내야수 김주형이 오는 19일 오후 1시 광주 제이아트웨딩홀 1층 아모레홀에서 동갑내기 신부 정주희(30)씨와 웨딩마치를 울린다. 신라호텔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비신부와는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이번 겨울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게 됐지만 결혼식을 앞둔 김주형은 쑥스럽기만 하다.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식을 올리고 싶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주형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발목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다. 스프링캠프에도 참가하지 못했다가 5월29일 처음 1군 경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뒤늦게 그의 2015시즌이 시작됐지만 기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성적이었다. 발목, 손목 통증 등 부상도 계속됐다.

김주형은 "뼛조각 제거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다가 6월이 다되어서 올라왔는데 부상으로 그나마도 자리를 많이 못 지켰다. 타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뭐라고 평가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즌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부상으로 힘겨웠던 올 시즌이었기에 시즌이 끝난 후 김주형은 건강한 몸만들기에 공을 들였다. 웨이트에 집중하면서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주형은 "웨이트를 많이 했다. 중량을 늘리는 웨이트가 아니라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 웨이트 훈련을 많이 했다. 안 아프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내년에는 정말 잘하고 싶다. 이제 결혼도 하는데 더 믿음직한 선수, 남편이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김주형은 수비에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1·2·3루에 모두 선 김주형은 우익수로도 나서 괜찮은 수비 실력을 과시했다. 정식으로 경기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훈련 과정에서 포수 마스크를 쓴 적도 있다. 강속구 투수 한승혁이 옆구리 통증으로 스프링 캠프에서 조기 귀국하고 함평에서 재활 훈련을 할 때 훈련 파트너로 몇 차례 공을 받아주기도 했다.

김주형은 "감독님께서 포수도 되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다. 전 포지션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었다.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그만큼 간절하다. 어느 자리를 생각할 입장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보여드려야 하는 상황이다"며 "수비도 수비지만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타격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자신감 있게 타석에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有口無言(유구무언)'.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던 시즌이었다. 김주형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무리 캠프를 자처하기도 했었다. 김기태 감독도 내심 캠프로 불러 훈련을 시키고 싶었지만 고참급 선수에 대한 배려와 몸관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김주형을 남겨두고 떠났었다.

이제는 유망주라는 꼬리표가 어색해진 나이, 가장이라는 책임감까지 무겁게 얹어진 2016년이 '새 신랑' 김주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득녀한 투수 양현종도 같은 날 지각 결혼식을 올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년 세계 최고의 선발투수는?

美 야구통계사이트 선정 11위권 한국 선수는 없어

미국의 대표적인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내년 세계 최고의 선발투수로 변함없이 클레이턴 커쇼(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꼽았다.

또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에서 한국 타자들을 완벽 제압한 일본의 괴물투수 오타니 쇼헤이(21·닛폰햄 파이터스)를 6위로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팬그래프닷컴은 3일(이하 한국시간)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발투수의 평균자책점을 산출한 결과 커쇼가 2.35를 기록, 전체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들의 내년 평균자책점을 4.00, 선발투수의 평균자책점을 4.13으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2위는 호세 페르난데스(2.75·마이애미 말린스), 3위는 크리스 세일(2.87·시카고 화이트삭스), 4위는 제이크 아리에타(3.01·시카고 컵스), 5위는 맥스 슈어저(3.03·워싱턴 내셔널스)다. 6위인 오타니는 3.08로 전망됐다.

팬그래프닷컴이 발표한 상위 11명의 투수 중 한국 선수는 없다. 일본 출신의 다르빗슈 유(3.19·텍사스 레인저스)는 11위에 올랐다.

이 기사의 초점은 오타니에 맞춰졌다. 우선 팬그래프닷컴은 '사실 우리는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결과를 산출했다'고 적었다. 명단에 오타니가 포함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 사이트는 "일본 야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오타니가 6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그다지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재미 삼아 오타니가 내년에 메이저리그에서 뛸 경우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 계산해봤다고 밝혔다.

팬그래프닷컴은 다르빗슈의 2011년 일본프로야구 성적과 오타니의 올해 성적을 비교하는 방법을 썼다.

그러면서 "다르빗슈는 2011년에 24~25살이었지만, 오타니는 올해 20~21살에 불과했다"며 "오타니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면 언젠가 그가 세계 최고의 선발투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현재 가장 특출난 투수는 단연 커쇼"라면서도 "커쇼의 기량이 떨어지고 있을 시점에 오타니가 전성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팬그래프닷컴은 현재 24세 이하인 투수들이 전성기 때 기록할 평균자책점을 산출한 결과 1위는 호세 페르난데스(2.66), 2위는 오타니(2.76)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는 "현재 일본프로야구(NPB)의 시스템대로라면 이른 시일 안에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만약 메이저리그에 오기만 하면 강력한 사이영상 후보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연합뉴스

삼성 차우찬 페어플레이상

삼성의 좌완 차우찬(28)이 2015 KBO 페어플레이상을 받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2015 페어플레이상 수상자로 삼성 차우찬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경기에 임하는 자세, 관중에 대한 매너, 심판 및 기록위원의 판정에 승복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김재호·니퍼트·양의지(이상 두산), 삼성 이승엽·차우찬(이상 삼성), 나성범(NC), 박병호(넥센) 등 7명의 후보선수를 대상으로 심사를 했다.

이 중 뛰어난 성적은 물론 성실한 자세와 매너로 모범을 보인 차우찬이 최종 수상자로 낙점됐다. 차우찬은 올 시즌 13승7패 4.7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고, 194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탈삼진왕'에 올랐다.

페어플레이상은 경기 중 발생하는 판정 시비와 비신사적인 행동을 근절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제정됐다. 삼성 소속 선수의 페어플레이상 수상은 2002년 김한수, 2009년 강봉규, 2012년 박석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KIA에서는 2008년 윤석민, 2010년 양현종이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한편 페어플레이상에 대한 시상은 오는 8일 열리는 2015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이뤄진다. 차우찬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타자 박성현 '환상의 호흡' 상금왕 이보미

'더 퀸즈' 한 조 편성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대표하는 장타자 박성현(22·넵스)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상금왕 이보미(27·마스터스GC)가 4개 투어 골프대항전 '더 퀸즈'에서 호흡을 맞춘다.

KLPGA는 오는 4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컨트리클럽(파72·6500야드)에서 열리는 더 퀸즈(총상금 1억 엔) 1라운드 포볼(2명이 한 조로 각자의 공을 쳐 좋은 스코어를 적어내는 경기) 매치에서 박성현과 이보미가 한 조에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더 퀸즈는 KLPGA 투어와 JLPGA 투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호주여자프로골프(ALPG) 투어의 대표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박성현과 이보미는 KLPGA팀의 포볼 경기 마지막 주자로서 LET의 노련한 골퍼 카트리나 매슈(스코틀랜드)와 카린 이셰르(프랑스)와 겨룬다.

지난 주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에서 세계 랭킹 2위 박인비(27·KB금융그룹)를 제압한 박성현과 올 시즌 일본 남녀 투어 사상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이보미는 모두 상승세를 탄 상태다.

KLPGA팀 선수들은 약 1시간 동안 서로의 장단점과 전략을 논의하며 조 편성에 신중을 기했다. 특히 공격적으로 홀을 공략해 버디를 잡을 수 있는 선수와 안정적으로 경기하며 파를 보장하는 선수를 한 조로 묶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올해 한·미·일 메이저대회를 휩쓴 전인지(21·하이트진로)는 '버디 소녀' 조윤지(24·하이원리조트)와 한 조로 뛴다. 1조인 이들은 ALPG의 캐서린 커크, 니키 가렛과 경쟁한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을 거머쥔 김세영(22·미래에셋)은 KLPGA 투어 페어웨이 안착률 1위의 고진영(20·넵스)과 호흡을 맞춰 JLPGA의 오야마 시호·나리타 미스즈와 겨룬다.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 2위인 김민선(20·CJ오쇼핑)과 이정민(23·비씨카드)은 '장타자 조'로 묶였다. 이들은 LET의 글래디스 노세라(프랑스)·마리안 스카르프노르드(노르웨이)와 샷 대결을 펼친다.

더 퀸즈 2라운드는 포섬(2명이 한 조를 이뤄 공 한 개로 경기)으로, 마지막 3라운드는 싱글매치플레이로 열린다.

/연합뉴스

송원고 학생들 태권도 사랑 눈에 띄네

80여명 승단 심사 참여

송원고가 광주 유일의 태권도 시범학교답게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로 눈길을 끌고 있다.

송원고는 최근 남·여 1학년생 78명의 태권도 승단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승단 심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초단~3단의 승단 심사에 참여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송원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태권도협회가 지정한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시범학교다. 광주지역에서 유일하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송원고는 지난 2009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특성화 수업을 진행해왔다. 공부에 지친 심신 수련과 건강 유지 뿐 아니라 학생들의 심성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학교 설명이다.

학교 관계자는 "태권도 태극 품새·발차기, 대련 등을 통해 친구들간 우정을 다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